

女中生性폭행피살

醴泉寺

【大邱】18일 오후 4시 반경 慶北醴泉군甘泉洞縣內의 朴 贊宗씨(51·충인)의 딸나무리 마을사람에서 이마를 金命壽 氏(47·무직)의 큰딸 東姪女(16·중3)의 선배친구와 함께 자살하였음을 醴泉하교3교2년 林煥容君(16)이 발견했다.

林君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11일 실종된 金命壽를 찾던중 가진물에 들어

가보니 東姪女의 정부마비 부대에 모인채 숨져있었고 옆에는 피 묻은 팬티와 국산 양후 비닐 1개 등이 놓여있었었다는다.

정경호 순선 金命壽 11일 고인식발사업 예비소집에 참석하후 오후 3시경 호자집으로 돌아오니 실종했다는 불만자들의 말에 따라 인근 醴泉군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가보니 東嶽의 정부마바를
부대에 모양채 숨쳐있었고
옆에는 피물은 깃티와 국산
양주 빈병 1개들이 놓여있었
다느니라.

정철은(송진)송악이 11일
고임선발시험 예비소집에 참
석한후 오후 3시경 후자집으
로 돌아오니 실종됐다는 친
지들의 말에 따라 인근 불타
배를 타고 대상으로 수사를 퍼
고있다.

〔4판〕

1990년 10월 24일〔수요일〕

폭력배 두목 구속 알몸사진 찍어 협박 돈 뜯기도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10일 오후 3시께 학부모를 가

김씨 등은 이어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욕보이는 장면과 口씨
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주
지 않으면 사진을 학교와 가족에
게 공개해 매장시키겠다”고 협박,
이튿날 2백30만원을 뜯어냈다.

한편 서울시경은 23일 서울시
내 신흥 조직폭력배 일제검거에
나서 31개파 1백23명을 붙잡아 7
9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3명은 조사중이다.